

문화방송 노보

발행인 김연국
편집인 이종각
편집 김사이
주소 서울 마포구 성암로 255
MBC미디어센터 11층
TEL 02_789_3881~6
FAX 02_782_0135
www.mbcunion.or.kr
mbcfreedom.blog.me
2019년 2월 25일

NATIONAL UNION OF MEDIAWORKERS MUNHWA BROADCASTING UNION

13기 위원장 · 수석부위원장 오동운 · 고차원 출마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가 13기 집행부 구성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2월 11일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서울지부 오동운 조합원(사진 오른쪽)과 전주지부 고차원 조합원(사진 왼쪽)이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 후보로 단독 등록했다. 두 후

보자는 12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해 울산지부 방문을 시작으로 3월 3일까지 서울과 지역의 조합원들을 만날 예정이다.

MBC본부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전홍배 조합원)는 2월 27일과 28일 이틀 간 출장 및 휴직 등으

로 본투표가 불가능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부재자 투표를 실시하고, 3월 4일부터 6일까지 모바일 투표를 병행한 본투표를 실시한다. 개표는 3월 6일 저녁 7시이며 당선이 확정되는 즉시 공고할 예정이다.

김장겸 · 안광한 · 백종문 · 권재홍 징역형 선고

역사적 판결, 의미와 과제

역사적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는 부당노동행위로 기소된 안광한 · 백종문에 게 징역 1년을, 김장겸 · 권재홍에게는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 유예했다. 이명박 · 박근혜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음모에 부역한 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은 것이다.

노동조합 탄압은 국민에게 해악

노동 탄압 행위가 단순히 노동조합과 MBC를 망가뜨리는 수준이 아니라 국민에게 해악을 끼친 점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보도 및 제작 부서에서 상당한 경력과 업무능력을 갖춘 인력”의 대량 공백

을 만들어 “충실한 방송제작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했으며, 이는 “공공적 성격을 가진 방송사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저해”하여 “방송을 향유할 국민들의 권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밝혔다.

승리의 주역은 조합원

공정방송을 지키려는 조합원들의 정당성과 합법성이 또 다시 인정받았다. 탄압 속에서도 저항하며 불이익을 감수하고 특별근로감독, 검찰 수사, 재판 과정에서 MBC의 암흑 역사를 직접 진술한 조합원들의 용기가 역사적 판결을 이끌어냈다.

과거 청산과 새로운 MBC

다시는 MBC에서 방송장악의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부역자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 어처구니없는 재판부의 결정으로 활동이 일시적으로 정지된 정상화위원회의 기능을 복원시켜야 한다. 무엇보다 방송 독립을 항구적으로 보장할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국민이 직접 MBC 사장을 뽑는 제도를 만들어, 오직 국민만을 위한 공영방송을 세워야 한다.

관련기사 → 6,7,8면

제13대 위원장 · 수석 부위원장 후보자 출마의 변



오동운 위원장 후보

- 1996년 MBC PD 입사
- 노동조합 홍보국장
- 노동조합 사무처장
- 현 통일방송추진단 통일협력사업팀장

조합의 문을 두드리던 첫 마음을 기억합니다

노동조합의 문을 두드리던 첫 마음을 기억합니다. 수습기간을 마치고 동기들과 조합 사무실을 찾아가 당연한 마음으로 가입원서를 썼고, 함께 하는 동지들과 든든한 울타리를 얻었다며 든든해했던 그 날을 떠올립니다.

MBC인으로 맞이한 첫 방송을 기억합니다. 햇병아리 조연출이 화면 속에서 순식간에 지나가는 제 이름을 설레는 마음으로 지켜보다가 공영방송이, 올바른 언론이 담당해야 할 책무를 실감하며 묵직한 부담을 함께 느꼈던 그 날을 떠올립니다.

방송독립의 가치를 들었던 첫 과업을 기억합니다. 사회에 나와 일터를 뒤로 하고 나선다는 생경한 경험이 두렵기도 했지만, 공영방송 MBC와 공정방송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조합원 서로의 어깨를 맞대며 굳센 결의와 따뜻한 온기를 나누던 그 날을 떠올립니다.

공정방송을 짓밟고 MBC를 갈라놓았던 과거의 걸림돌은 조합원들의 끈질긴 투쟁과, 촛불시민과 시청자들의 준엄한 심판으로 밀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

만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호시탐탐 MBC를 노리는 세력들은 조그마한 빈틈도 놓치지 않으려 필사적입니다. 우리 역시 두 눈 부릅뜨고 우리의 일터를 지켜내야 합니다.

다시는 MBC가 정치권력의 입김에 휘둘리지 않도록 힘을 모아야 합니다. 자본의 힘에 스스로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방송이 되도록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국민과 시청자들을 위한 공영방송, 공정언론의 가치를 다시는 넘보지 못하게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싸움은 조용해졌지만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그 싸움은 항상 노동조합의 몫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MBC를 지켜온 조합의 첫 마음을 기억하겠습니다. 조합의 문을 두드리던 저의 첫 마음을 기억하겠습니다. 처음을 기억하는 것은 과거의 영광을 회상하며 그 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새로운 용기로 다가오는 도전을 헤쳐나가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러했고, 앞으로도 변함없을 조합원들의 힘으로 승리하는 조합, 건강한 일터 MBC를 함께 만들겠습니다.



고차원 수석 부위원장 후보

- 1997년 전주MBC 기자 입사
- 전국언론노조 정책국장
- 전국언론노조 민주언론실천위원장
- 현 전주지부 위원장

우리의 상식과 집단 지성을 믿고 앞으로 걸어가겠습니다

공영방송 MBC를 있게 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 가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아마도 많은 조합원들은 서슴치 않고 MBC본부라고 말할 것입니다. 권력의 꼭두각시로 퇴행해 만신창이가 된 MBC를 구해낸 것은 바로 2천 조합원들이 굳건히 지켜온 MBC본부였습니다. 87년 민주화 운동에 힘입어 시작한 방송 민주화 투쟁에서 노동조합은 항상 맨 앞자리를 지켰습니다. 지난 2017년 총과업 투쟁은 우리 MBC본부가 30년 전 내 걸었던 방송 민주화와 언론자유 투쟁 정신을 계승하고 있음을 다시 알린 결단이었습니다. 13대 노동조합도 공영방송 MBC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언론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과 저항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MBC를 향한 국민들의 눈높이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아져 있습니다. 현실과 목표 사이에서 우리가 좁혀내야 할 간격은 매우 넓어져 버렸습니다. 반면 갈수록 치열해지는 미디어 시장에서 지상파의 존재감은 하루가 다르게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10년 동안 우리의 콘텐츠 경쟁력과 채널 영향력은 상실과 좌절의 시대로 접어든 듯이 보입니다. 미래를 염려하는 조합원들이 늘고 있고 자괴감과 탄식은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허우적거릴수록 빠져드는 불안의 늪에 더 이상 갇혀 있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우

리에게는 늪에서 벗어날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노동조합은 우리 내부의 불안과 두려움을, 역경을 돌파해내는 강력한 에너지로 전환하는 출발점이자 저수지가 되겠습니다.

MBC본부는 서울지부와 17개 지역 지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조 내부에서는 시공간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갈등과 마찰이 있어왔지만 우리는 냉철함을 잃지 않고 해법을 찾아왔습니다. 서울과 지역의 2천 조합원들이 보여준 상식과 진정성은 건강한 집단 지성으로 결집되며 많은 난관을 극복해 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장점은 더욱 빛을 발할 것이고 이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사소한 차이를 넘어설 것입니다. 그리고 MBC 본부를 더 강하고 매력적인 조직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리하여 자부심을 갖고 MBC본부 조합원이라고 말할 수 있고 머릿속에 떠올리면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뛰는 MBC 본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랑스럽고 존경하는 2천 조합원 여러분! 노동조합은 시대가 요구하는 다양한 상황과 변화에도 능동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대처할 것입니다. 당당한 MBC, 2천 조합원의 구심인 노동조합이 될 것이며 이를 위해 정직하고 우직하게 걸어가겠습니다.

제13대 서울지부 위원장 · 부위원장 후보자 소개



오동운 위원장 후보

- 1996년 입사
- 노동조합 홍보국장
- 노동조합 사무처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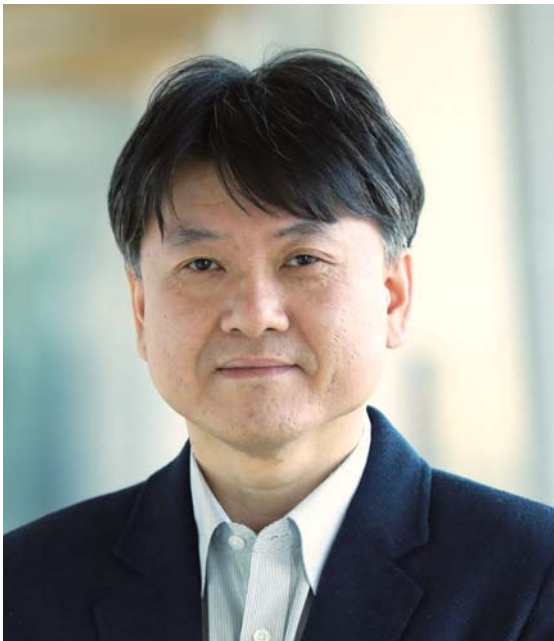
황윤정 부위원장 후보

- 2000년 입사
- 노동조합 여성국장
- 현 기획조정본부 정책협력부



김선국 부위원장 후보

- 2001년 입사
- 현 제작기술국 보도기술부



정우영 부위원장 후보

- 2001년 입사
- 현 뉴스영상콘텐츠국 뉴스콘텐츠취재1부



오규택 부위원장 후보

- 2001년 입사
- 현 영상미술국 영상1부



최행호 부위원장 후보

- 2004년 입사
- 현 예능본부 예능2부

본부 및 서울지부 선거일정



선 거 운 동	2월 12일 ~ 3월 3일
선거인명부 확정	2월 1일 기준
선거인명부 열람	2월 25, 26일
부 재 자 투 표	2월 27, 28일
본 투 표	3월 4, 5, 6일
개 표	3월 6일 저녁 7시

〈춘천MBC 사태 노사 공동 진상조사위원회〉 출범

김동섭 사장 거취 결정을 위한 조사, 3월 중 결론

김동섭 사장 취임 이후 심각한 노사갈등을 빚어온 춘천MBC사태를 조사하기 위한 노사 공동 조사위원회가 출범했다. (주)문화방송과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춘천MBC 사태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노사 공동 조사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지역사 사장의 거취를 결정하기 위해 조사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조사위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책임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사위원은 노사 양측이 각각 3인씩 선임했다. 조사위원회는 오늘(25일)부터 조사를 시작해 3월 18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한다. (주)문화방송

대표이사는 조사위의 보고서 제출 7일 이내에 해결 방안을 조사위에 통보하고, 춘천MBC 주주총회에 반영하기로 했다. 당초 3월 14일로 예정됐던 춘천MBC 정기 주주총회는 조사위 일정을 감안해 3월 29일로 연기됐다.

춘천MBC 노사 양측은 노사 갈등을 악화시킬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고, 김동섭 춘천MBC 사장에 대해서는 대표이사로서 주요한 경영행위를 중단시키기로 했다.

춘천MBC 사태 노사 공동조사위원회 구성

목적

- 춘천MBC의 노사갈등이 심화돼 조합원들이 사장 퇴진을 요구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과정과 원인을 조사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책임을 규명
- 위원회는 오로지 조사위원의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춘천MBC 사태의 진상과 책임을 철저하게 규명

조사대상

- 춘천MBC 노사 갈등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안들과 노사 관련 당사자들
- 구체적인 조사내용과 범위, 대상자 선정은 조사위원들이 협의하여 결정

활동기간

- 자료조사 및 진술 청취: 2월 25일~3월 10일
- 보고서 작성: 3월 11일 ~ 17일
- 보고서 제출: 3월 18일
- 조사위원들이 합의할 경우 조사기간은 7일, 보고서 제출기한은 3일 각 한 차례에 한해 연장

위원회

구성

- 구성 주체는 (주)문화방송과 전국언론노동조합
- 위원회 구성은 노사 양측 3인
- 노측 : 윤석빈 전국언론노조 민주언론실천위원장, 이재원 MBC본부 광주지부장, 이동윤 MBC본부 대구지부장
- 사측 : 이정식 기획조정본부 부국장, 전병덕 경영지원국 부국장, 라지훈 예산기획부 차장
- 조사위원은 활동 종료시까지 그 신분과 자유롭고 독립적인 조사활동을 보장
- (주)문화방송은 조사위의 활동을 위해 필요한 인사와 출장 등 제반사항을 보장

보고서

작성과 제출

- 보고서에는 각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또는 사규나 법에 의해 규정이 가능한 판단, 기타 의견을 포함
- 사실 관계 판단, 의견에 있어 위원들의 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 최대한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하되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병기
- 보고서의 결론은 위원들이 합의하여 작성하되, 합의가 안 될 경우 각 이견을 병기
- 보고서는 (주)문화방송 대표이사와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에게 각각 제출

결과 처분

- (주)문화방송 대표이사는 진상조사위의 조사결과를 근거로 보고서 제출 7일 이내에 춘천MBC 문제의 해결방안을 조사위에 통보하고 그 결과를 정기 주주총회, 또는 임시 주주총회에 조속한 시일 내에 반영

기타

- 춘천MBC 노사 양측은 조사위원회의 조사와 관련자료 제출 요구에 반드시 응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조사위원회는 각 인사권자에게 인사위원회 회부 권고
- 조사위 활동 개시일부터 대표이사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춘천MBC 노사 양측은 노사 갈등을 악화시킬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
- 춘천MBC 사장은 같은 기간 인사발령, 조직개편 등 대표이사로서 주요한 경영행위를 중단

사상 초유의 진상조사위 출범

MBC그룹 전체를 흔드는 김동섭 사장 자진사퇴만이 답이다

사상 초유의 노사 공동 진상조사에까지 이르게 된 춘천MBC사태의 장기화 책임은 김동섭 사장에게 있다. 1년 전 김동섭 사장은 춘천MBC의 정상화와 적폐청산의 소임을 안고 취임했다. 전임 송재우 사장의 기행과 노동조합 탄압으로 황폐화된 춘천MBC에서 적폐청산과 조직 재건은 최우선 과제였다. 그러나 김동섭 사장은 출발부터 최고경영자로서 수준 이하의 발언을 내뱉었다.

“적폐 청산에 있어 춘천은 서울에 비해 본질적으로 급이 낮다. 내가 사장 지원 경영계획서에 쓴 대로 춘천에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 내가 춘천에 오는 지 어떻게 알았겠나? 사장 면접 시 최승호 사장이 춘천 관철냐고 해서 알았다.”

- 2018년 2월 1일 춘천지부장 면담 김동섭 사장 발언

김동섭 사장은 수시로 적폐청산의 발목을 잡았다. 적폐청산 기구인 정상화추진단에 부지부장을 발령 내는 것을 문제 삼아, 결국 노사합의가 아닌 회사 일방의 조직으로 파행 출범했다. 정상화 추진단의 보고서를 한 달 이상 방치했고, 적폐인사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징계결정이 과도하다며 사규의 절차를 무시하고 재심을 신청하기도 했다. 이후 노사 관계는 파행으로 치달았고, 소통은 단절됐다.

춘천지부 조합원들은 지난 해 6월 조합원 총회를 열고 압도적 찬성으로 김동섭 사장 퇴진 투쟁을 결의했다. 그러나 최승호 체제 출범 초기에 부담을 줄까 봐 최대한 인내하고 양보했다. 김동섭 사장은 취임 5개월만

에 구성원들에게 사과문을 냈다.

“최근의 사태는 경위야 어떻든 사장인 저의 부덕 소치입니다. 우리 춘천문화방송의 경우 다른 지역사와는 다르게 특별히 큰 상처를 입었기에,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데 있어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하나 여러모로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안이 됐든 저 혼자만의 독단적 결정이 아니라 여러분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2018년 7월 김동섭 사장 사과문

그러나 지난해 10월 벌어진 폭력 사태에 대한 김동섭 사장의 대응은 그나마 남아있던 기대조차 접게 만들었다. 정상화추진단의 조사를 방해하고 폭언을 한 A씨가 조합원들을 위협하는 사태가 벌어졌지만, 김동섭 사장은 사태를 방치했다. 내부의 반발이 커지자 김 사장은 “노조가 무리한 직종 전환을 요구했다”, “노조원들이 사건을 부풀리고 있다”는 왜곡된 주장을 흘리며 노사 갈등을 증폭시켰다.

사기는 바닥에 떨어졌고, 갈등은 커졌다. 김동섭 사장이 있는 한 춘천MBC가 정상적 역할을 하기란 불가능하다. 결국 사장 진퇴를 놓고 사상 초유의 진상조사를 벌이는 사태까지 왔다. 김동섭 사장은 이제 춘천MBC 뿐만 아니라 최승호 사장, MBC본부는 물론 방송문화진흥회 등 MBC 그룹 전체에 큰 부담을 떠안기고 있다. 최선의 해결책은 하나다. 스스로 물러나시라.

춘천MBC 김동섭 사장 취임 이후 노사갈등 상황 일지

일 시	내 용
2018년 1월 29일	김동섭 사장 “적폐는 공정방송을 훼손하거나 부당 노동행위 한 사람. 춘천은 다르다” - 부임 첫날, 지부 집행부 상견례
2월 1일	김동섭 사장 “춘천의 적폐청산은 서울에 비해 본질적으로 급이 낮다.” - 지부장 면담
2월 2일	춘천지부 1차 비상총회 조속한 인사 발령 등 적폐청산에 대한 사장의 명확한 입장 요구
2월 22일	춘천MBC 정상화추진단 파행 김동섭 사장, 노조 추천 추진단원에 대해 문제 제기
2월 27일	춘천지부 2차 비상총회, 정상화추진단 불참 결의
4월 9일	김동섭 사장, 정상화추진단 조사 공정성에 불신 제기, 보고 요구
6월 5일	부당노동행위 전 경영심의국장 등 4명 징계 김동섭 사장, 인사위원회 결과에 대해 반발
6월 8일	김동섭 사장, 징계 재심 요구. 초심 징계 처분 결재 없이 재심 신청해 사규 위반

일 시	내 용
6월 14일	김동섭 사장 근무시간 중 음주 추태 폭탄주를 마시고 녹화장에 나타나 출연자에게 거수 경례를 하고 비틀거림
6월 22일	춘천지부 3차 비상총회 김동섭 사장 퇴진투쟁 결정, 시기와 방법은 집행부에 일임
7월 4일	김동섭 사장, 사과문 발표
7월 20일	춘천지부, ‘노사화합 및 정상화를 위한 사원대토론회’ 개최 제안 김동섭 사장, 두 달 뒤 “굳이 열 필요 있냐” 답변
10월 15일	사내 폭력사태 발생
10월 22일	춘천지부, 임시 노사협의회에서 회사의 신속한 대처 요구. 김동섭 사장 거부
10월 23일	사측의 녹장대응 항의 출근저지 피케팅
10월 24일	춘천지부 4차 비상총회 폭력사태 방치 규탄, 사장퇴진 투쟁 돌입 결정
11월 5일	춘천지부 퇴진투쟁 돌입

언론 부역자들 단죄 <판결문 요약>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내려진 역사적 판결의 주요 내용을 요약해 싣는다.

노동조합은 판결문 전문 역시 조만간 조합원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1. 배경

노동조합은 김재철 사장 선임 후 2010년 8월부터 뉴스데스크 불공정 보도, 피디수첩 제작진 인사조치 등을 문제 삼아 사측을 비판하고 공정방송협의회 개최, 김재철 퇴진 등을 요구하였으나, 사측은 공정방송협의회 개최 등을 거부했다. 결국 2012년 1월 총파업이 시작됐다. 사측은 대체인력을 채용해 투입하고, 파업 참가 조합원 733명에게 R등급(최하등급)을 부여했으며, 다수에게 교육발령내거나 본래 근무하던 부서가 아닌 부서로 전보했다. 2014년 2월 사장에 취임한 안광한은 그해 3월과 5월 피디와 기자들을 경인지사 등으로 발령했고, 세월호 참사 보도에 대한 비판을 이유로 조합원을 징계했다.

2. 2014-2016년 부당전보

2014년 10월 안광한 등은 “새로운 사업을 개발할 조직과 뉴미디어 개발 관련 조직을 보완하고, 그 조직은 부 단위보다 크게 만들라”는 내용의 지시를 내렸다. 며칠 뒤 ‘신사업개발센터’와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가 신설됐고, 2014년 10월 31일부터 2016년 4월 25일까지 총 8회에 걸쳐 조합원 28명이 이곳으로 발령났다.

이 발령은 노동조합에 적극 참여한 조합원들을 보도, 제작 업무에서 배제하고 노조의 규모와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사에서 이뤄졌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각 센터는 경영위기 상황 타개를 위한 전략적 부서라고 볼 수 없다. 조직개편 불과 2주 전에 두 센터의 신설이 결정되었고, 4일 전에야 업무분장이 정해졌다. 부서장과도 협의하지 않았고, 심지어 담당 본부장은 조직개편 3일 전에 센터 신설을 처음 알게 되었으며, 업무는 타 부서들과도 중복되었다.

안광한, 권재홍, 백종문은 센터 신설 직전 ‘방출대상 인원 명단’을 취합해 임원회의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나온 “이OO, 박OO 등을 방출시켜야 한다. 개발센터로 보내든가.”라는 발언에 비추어 두 센터는 방출대상 인원을 전보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신설된 것으로 보인다. 방출대상자들은 2012년 파업에 적극 참여했거나, 사측을 상대로 한 노조의 소송에 당사자로 참여하거나, 노동조합 민실위 간사 등을 맡아 불공정 보도를 비판하는 등 노조 업무를 위한 행위를 한 조합원들이었다.

전보된 조합원들은 피디, 기자, 아나운서 등의 직종으로 입사해 적게는 8년, 많게는 30여 년 간 종사하던 사람들로서, 발령의 기준이 업무상 필요성이라고 보기 어렵다. 전문적 업무를 수행하던 기자와 피디들은 MBC에서 쌓아온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갖지 못한 채 경력이 단절되었고, 별다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해 업적 평가에서 하위 등급을 받는 등 불이익을 받았다. MBC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보도본부에서만 71

명을 채용한 것은 이 부당전보로 인한 공백을 보충한 것으로 인력과 비용을 비효율적으로 소모한 것이다.

2012년 파업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계속되는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전보가 계속됐으므로, 피고인들은 불법의 여지가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전보발령을 계속한 것으로 보인다. 김장겸 역시 당시 보도국장으로서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안광한, 권재홍, 백종문과의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3. 노조 탈퇴 지시

2014년 5월 안광한은 임원회의에서 “보직자들이 노동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며 만약 노동조합을 탈퇴하지 않을 경우 인사조치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김장겸 당시 보도국장은 이진숙 당시 보도본부장에게 이 지시를 전달받고 편집회의에서 이를 전달했다. 당시 보도국 소속 부장 중 조합원은 4명이었는데, 김장겸의 지시가 있는 후 3명이 노동조합을 탈퇴했다.

안광한은 2014년 6월 조합원이던 보직자 20여 명 중 끝까지 탈퇴하지 않은 두 명의 보직을 박탈하고, 기존 업무와 관련성이 적은 부서로 전보했다. 이 같은 탈퇴 종용, 전보, 승진 누락 등으로 인해 노동조합원 수는 2015년 4월부터 2017년 3월까지 2년 간 157명이 감소했다.

안광한은 보직자들에게 임금피크제 적용 제한, 안식년 면제 등을 지시해 상당한 경제적 이점을 제공하고, 비보직자들에게는 ‘수시성과 시스템’ 도입을 지시해 그 결과를 전보와 징계에 반영했다.

종합해 볼 때 이같은 행위는 조합원 개인의 판단과 행동, 노동조합의 운영에까지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4. 승진 배제

권재홍, 백종문, 김장겸은 2015년 5월 인사위원회에서 승진 대상자들을 심사했다. 경영지원국장 송병희는 백종문의 지시에 따라, 사측을 상대로 한 소송에 노동조합을 위한 탄원서를 작성한 사람들을 노란색으로 표시한 자료를 인사위원들에게 교부했다. 송병희는 “교부한 자료는 폐기하겠다”고 말했다. 그 결과 5명이 승진에서 배제됐다. 당시 인사위원들이 배제 대상자들에 관해 한 발언이 기록된 녹음은 적법하게 증거로 인정된다.

그 다음해인 2016년 승진 심사는 “회사와 소송 중인 자 등을 엄격히 심사해 반영한다”는 기본 방침 하에 이뤄졌고, 심사 시 노동조합 가입 여부 등이 표시된 명단을 활용했다.

권재홍, 백종문, 김장겸은 파업에 적극 참여했거나 다른 조합원들을 위한 탄원서를 냈거나 게시판에 비판 글을 썼다는 이유로 조합원들을

승진에서 배제했으며, 이는 노조 가입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5. 2017년 부당전보

2017년 2월 김장겸이 MBC 사장에 취임했다. 노동조합은 “김장겸이
각종 선거 관련 편파 보도, 국정원 대선 개입 댓글 사건에 대한 보도 누
락, 국정농단 사태 축소, 은폐”를 이유로 김장겸 취임을 반대하고 출근
저지 피켓 시위를 했다.

2017년 3월 김도인은 임원회의에서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 내에 ‘월
드와이드 제작팀’ 신설안을 보고하고, 기자와 피디 9명을 발령하는 인
사개편안을 확정해 김장겸에게 보고했다. 월드와이드 제작팀은 구로에
위치한 사무실에 제작을 위한 카메라, 편집기 등의 설비가 갖춰져있지
않아 상암 본사에서 작업을 요청했으나 반려됐고, 프로그램 제작은 무
산됐다.

당시 두 센터로 발령난 8명은 모두 조합원이었는데, 그 중 한 명은 탄
핵 다큐를 제작하다 김도인에게 제작 중단 지시를 받았고, 3명은 2월
24일 김장겸 취임에 반대하는 노조의 피켓 시위에 참여했다. 전보 발령
전 인사 대상자와 협의하거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 대
상자들은 발령이 게시된 뒤 알게 됐고 전보 사유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
했다.

김장겸, 백종문은 ‘월드와이드’ 제작을 위한 발령이었다고 주장하지
만, 전보 발령 불과 1주일 전 기획됐고 관련 부서 의견 수렴이 없었고 구
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기획이 아니었으며 구로에 제작 설비가 없었는
데도 예산도 배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

김장겸은 인사발령 사실을 보고받았고, 취임 후 첫 인사여서 관심을
갖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장이어서 몰랐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역시 노조에 적극 참여한 조합원들을 보도, 제작에서 배제하고
노조의 규모와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공모한 것이므로 부
당노동행위이다.

6. 결론

피고인들은 공영방송인 MBC의 경영진으로 방송 독립과 공정성 실
현을 추구하고 노동조합을 존중해야 함에도, 노조에 적극 참여한 조합
원들을 보도와 제작 업무에서 배제하고 노조 탈퇴를 지시하고 승진에
서 누락시켰다. 3년 동안 지속된 피고인들의 행위로 노동조합 조직과
운영이 상당히 위축됐다.

경험과 능력에 따른 인사가 아니라 노동조합 활동과 성향 등을 주요
한 기준으로 삼아 조합원들로 하여금 업무경력 단절과 업무능력 저하
를 비롯한 불이익을 감내하도록 했다. 특히 보도·제작 부서에서 상당
한 경력과 업무능력을 갖춘 인력의 공백이 다수 발생해 충실한 방송 제
작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했다.

이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된 노동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에 해당
할 뿐만 아니라, 공공적 성격을 가진 방송사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
을 저해하는 행위로 방송을 향유할 국민들의 권익에도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행위이다.

그 죄의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데도,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
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

2015년 5월 승진 인사위 녹취록

이번 판결은 2015년 5월 8일에 녹음된 인사위원회 녹취록을 적법한 증거로 채택했다.

녹취록에는 당시 경영진의 노골적인 범죄행위가 낱낱이 기록돼있다. 그 일부를 발췌했다.

“탄원서 썼으니 노란줄”

백종문 : “보직자 중에서 파업할 때 내려간 사람들은 계속 (승진에
서) 밀려놔야 하는 것 아니냐.”

송병희 : “2015년 4월에 탄원서를 썼다. 제가 그거 노란 줄로 표
시해서 드렸다.”

김현중 : “빼야 되겠네 그럼? 탄원서 썼으면 빼야 되겠네. 빼겠습니
다.”

“재직년수 돼도 누락시키자”

백종문 : 재직년수로 해서 올라갔는데, 한 번 정도 누락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요?”

권재홍 : “당연히 있죠.”

백종문 : “응. 소생시킬 건 아닌 거 같다.”

권재홍 : “아, 이거 빼.”

“이 XX, 게시판에 글 올렸으니까 빼자”

백종문 : “하는 행위로 봐선, 한 두 번 한 거 봐서는 누락시키는 게
맞는 것 같다. 부서가 실제로 지금 안 맞는다.”

다른 참석자 : “이 XX 글 막 올리고.”

권재홍 : “빼죠.”

백종문 : “정상 승진을 해주면 안 되는 게 맞다.”

김장겸 취임부터 유죄판결까지 2천 조합원 727일 투쟁의 기록

김장겸 사장 선임, 추가 부당전보, 특별근로감독 착수, 김장겸 체포영장, 검찰 수사와 기소, 징역형 유죄 선고까지. 역사적 판결을 이끌어낸 주역은 2천 조합원들이었다.
길고도 치열했던 727일의 투쟁 기록을 정리했다.

2017년 2월 23일
고영주 방문진, MBC 사장으로 김장겸 선임



3월 10일
김장겸, 사장 되자마자 무더기 부당전보

기자들과 PD들 구로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로 보복인사

6월 1일
노동조합, 특별근로감독 신청



6월 2일
“김장겸은 물러나라” - 릴레이 시위로 확산



6월 29일
고용노동부 조사 착수... 조합원 불법 채증

고용노동부, MBC에 근로감독관 파견해 현장 조사 시작. 김장겸, 촬영장비 동원해 조합원들 채증

7월 12일
“우리가 당신 범죄의 증거다” 성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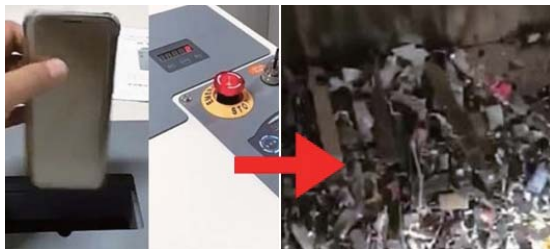
김장겸 “증거도 없는 표적 사찰”이라며 반발.
보복발령 피해 조합원 157명 “우리가 바로 증거” 성명

8월 8일
노동조합, 노조파괴 블랙리스트 폭로 기자회견

영상기자 등급 분류 블랙리스트 실체 확인

8월 14일~17일
김장겸 일당 조직적 증거 인멸

김장겸·백종문 등 소환조사 앞두고 스마트폰 파쇄, 증거 인멸



8월 30일
‘유배지 폐쇄’ 선언

쫓겨난 조합원들 ‘유배지 폐쇄’ 선언하고 상암동 귀환.



9월 1일
김장겸 체포영장 발부

출석 요구에 수 차례 불응한 김장겸에 대해 체포영장 발부. 방송의 날 행사 도중 김장겸 출행량.



9월 4일
노동조합 총파업 돌입



9월 5일
김장겸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 출석

김장겸 “취임 6개월 된 사장이 무슨 부당노동행위를 하겠나?”



11월 13일
방문진, 김장겸 해임



2018년 1월 11일
검찰, 김장겸·안광한 등 기소

2019년 2월 19일
법원, 김장겸·안광한·권재홍·백종문 징역형 선고